

+ 양창근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방송기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푸르름이 더욱 더 짙어가는 8월입니다. 신록의 계절답게 세상은 온통 초록의 빛깔을 담았습니다. 이 신록의 계절에 “방송과 기술”의 지면을 통해 연합회원과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15일에는 제22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기술인연합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기술인연합회의 새 집행부는 과거 선배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욱 더 발전된 기술인연합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런 만큼 겸허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로 기술인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3년 간 기술인연합회는 방송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특히, 방송기술 정책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과거 DTV 전송 방식에서부터 최근 AM주파수 재배치, 방송장비 고도화 등 우리나라 방송기술 정책결정에 있어 기술인연합회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은 모든 계층에 대해 무료 보편적이며, 평등한 서비스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유한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전파법은 우리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향후 주파수의 비싼 경매비용은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균형성장이 필요합니다. 무료방송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방송사들은 주파수 경매제 실시 후, 통신기술의 압도적인 기세에 놀려 무기력하게 방송주파수를 반납했고, 그 후야야 차세대 방송기술인 3DTV, UHDTV, 모바일TV를 제공할 터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방송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게도 좋은 토양을 제공할 때, 훌륭한 수확이 나올 것입니다.

기술인연합회는 향후 2013년 디지털 완전 전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함은 물론, 향후 3DTV, Open IPTV, UHDTV에 대해서도 기술표준 제정 등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난 5년 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디지털 전환기에 있어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교육의 효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을 순조롭게 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까지 연장 예정인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현재처럼 기술인연합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주관으로 계속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식수준과 방송기술력이 높은 방송사 직원들에 대해 정부에서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 통합 교육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교육의 세부 시행은 현재처럼 기술인연합회 주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합회는 종편 및 보도 PP 선정,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 TV 등 방송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가 나아 갈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할 것입니다. 때로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학계, 외부 연구기관,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올바른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매년 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KOBA(전시회와 컨퍼런스)는 나날이 발전하여 미국 NAB, 유럽 IBC와 함께 방송장비의 꿈을 전하는 행사로 성장했으며, 방송과 기술은 누구나 애독하는 전문 잡지가 되었고, 방송 기술저널은 방송정책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모든 회원사의 소식을 밀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회도 세계적인 방송단체로 거듭날 기회를 맞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방송기술의 도약을 위해 향후 “방송과 기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발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내용에 있어 회원 여러분은 물론, 애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난이도 측면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뉴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실어 방송사에서 방송기술인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돕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방송기술인을 꿈꾸는 애독자에 대해 방송기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송사 입사에 대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사 근무 중인 협회원들의 근무현황도 상세히 전해 방송기술인을 꿈꾸는 애독자에게서 미래 직무에 대한 간접 경험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 방송사 중 소수 회원들을 위한 지면도 많이 활용해 연합회 활동이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기술인연합회 집행부는 임기 2년 동안 연합회원분들은 물론, 애독자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방송기술 전문지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 해주신 정효성 편집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께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